

나의 경건과 하나님의 역사

My Personal Piety and the Divine History

사도행전 10:1-6; 11:17-18 (10:1-11:18)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8월 25일 설교

¹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²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³하루는 제 구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⁴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⁵네가 지금 사람들을 읍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⁶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¹⁷“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¹⁸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구제 기도 금식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의 또는 경건이 세 가지 있습니다 (마 6:1-18).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하셨습니다. 뭘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게 해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하나마나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면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지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십니다. 금식도 그냥 굶으면 됩니다. 한 두 끼 정도 굶어도 내가 내색하지 않는 한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니 됐지요. 그런데 구제는 어땁니까? 구제는 남에게 물질을 주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못 합니다. 적어도 내 물질을 받는 사람은 압니다. 내가 주는 줄은 모르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자면 다른 사람이 또 알게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마라, 즉 제삼자는 모르게 해라 하셨습니다. 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는데 몰래 하라는 말씀도 되겠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오른손도 왼손도 다 내 손 아닙니까? 너 자신도 모르게 해라, 남을 도우면서도 뭔가 합네 하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고 도우라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 말씀이고, 현실은 어땁니까? 현실에서는 소문 다 납니다. 구제 많이 했다고 소문 난 사람, 기도 많이 했다고 소문 난 사람, 금식 많이 했다고 소문 난 사람, 참 많습시다. 기부 많이 했다고 소문난 사람이 있지요. 연예인, 정치가, 사업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소문이 난 게 아니고 소문을 낸 거겠지요. 사십일 금식기도를 몇 번 했다고 명함에 써 다니는 부흥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해도, 사람에게 자랑할 의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 조용히 하는데도, 소문이 납니다. 구제도 그렇지만 금식이나 기도도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는 이상 이렇게 저렇게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소문났다고 무조건 엉터리다 해서는 안 되겠지요.

고넬료의 경건

소문난 경건이 진짜일 수도 있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에게 하나님이 직접 알려 주셨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누가가 자료를 수집하다가 알게 되었을 겁니다. 금식은 모르겠습니다만 구제하고 기도는 많이 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도 진짜입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천사가 전해 준 말입니다. 네 기도랑 구제는 진짜다, 그런 말이지요. 그 천사도 기도하던 도중에 만났습니다 (행 10:30).

유대인들은 하루 세 번 기도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삼시, 육시, 구시였는데 요즘 시간으로 하면 오전 아홉 시, 정오, 오후 세 시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의 신앙을 받아들여 기도시간을 잘 지켰고 소문도 났습니다. 또 집안사람 말이긴 합니다만 고넬료가 워낙 경건하여 유대인들이 다 칭찬한다 하였습니다 (행 10:22). 유대인의 믿음도 가진데다가 고넬료가 구제한 백성이 거의 유대인이었을 터이니 칭찬을 안 할 도리가 없었겠지요. 기도와 구제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한 일입니다. 사람들도 다 알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

셨으니 고넬료의 기도도 구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만 믿는 마음으로 한 참 경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름도 로마식입니다. 이탈리아 대라 하는 군대의 장교였는데, 이탈리아 대는 당시 로마에서 유대 지방에 파견한 군대입니다. 소속 군인이 다 로마 시민인, 등급이 아주 높은 군대였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 요즘으로 치면 대대장쯤 되는 장교니까 이탈리아 현지에서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파견된 부대가 유대 지방의 수도인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는 말 그대로 황제의 도시인데 헤롯이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만든 신도시라고 전에 말씀드렸지요.

주께서 주신 복

천사가 나타나 먼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칭찬하더니 베드로를 부르라 지시했습니다. 기도랑 구제를 잘 했으니까 상을 주겠다는 소린데 상을 베드로한테 맡겨 놓았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 위치도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상은 말씀이었습니다 (행 10:22). 말씀도 보통 말씀이 아니라 고넬료 온 집안이 구원받을 말씀이었습니다 (행 11:14). 상이 뭔지 아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상금도 아니고 종합선물세트나 과일 같은 물건도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미 온 집안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니 이젠 또 뭘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사람을 골라 보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옹바라는 곳에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삼십 마일, 오십 킬로미터쯤 떨어져 있습니다. 젊은 남자가 부지런히 걸으면 열 시간쯤 걸립니다. 오후 세 시가 넘었으니 다음날 보내도 될 텐데 고넬료가 믿음이 좋아 그런지 직업이 군인이라 그런지 상을 얼른 받고 싶어 그랬는지 당장 보냈습니다. 종 두 사람하고 부하 군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였습니다. 도중에 어디서 일박을 하고 다음날 정오쯤 옹바에 닿았습니다 (행 10:9, 17).

옹바라는 마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갈 때 배를 탔던 항구가 바로 이 옹바입니다 (욥 1:1-3). 하나님이 이방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했더니 이방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건 싫다 하면서 반대쪽 옹바로 가서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요. 바로 그 옹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고넬료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수백 년 전 요나가 싫다 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베드로의 순종

베드로가 정오 기도를 마친 다음 사람들이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배가 많이 고팠는지 비몽사몽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유대인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 평생 더러운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았습다.” 소리가 또 났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 더럽다 하면 안 된다.” 똑같은 환상이 세 번 되풀이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 번이면 끝장을 본 겁니다. 그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해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같이 가거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니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베드로가 안 만나겠다 할까봐 하나님이 미리 지시하신 겁니다.

환상의 뜻은 우리 잘 압니다. 하나님이 전에는 유대인을 택하셔서 이방인하고 구분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거룩해야 된다 하고 성전을 거룩한 장소로 구분하고 안식일을 거룩한 시간으로 구분하고 또 음식도 몇 가지는 못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전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같이 가라고 하십니다.

일단 들어오라 해 이야기를 들어 보니 고넬료라는 장교가 보내서 왔습니다. 이방인인데 경건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사람이라 합니다. 게다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왔답니다. 제가 묵고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고 찾아온 것도 놀랍고 말하는 내용을 들어도 놀랍지만 제가 방금 본 환상이랑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하고도 꼭 맞으니 베드로도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룻밤 재우고 다음날 아침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옹바에서 같이 있었던 형제 여섯 명도 데리고 갔습니다.

말씀을 전한 베드로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도착했더니 고넬료가 집안 식구뿐 아니라 친척들, 친구들까지 불러 모아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 집이 구원얻을 말씀이라 했으니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많이 불러 모을수록 집이 커지겠지요. 베드로가 들어오자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인데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 같았던 모양입니다. 베드로가 만류한 다음 사람들 앞에서 인사부터 합니다. 자기는 유대인인데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어울리는 건 율법이 금지하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인을 더럽다 하면 안 된다 하셔서 이렇게 왔다 하면서 자기를 부르게 된 내력을 물었습니다.

고넬료가 설명을 했습니다. 옴바까지 갔던 사람들이 한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잘 오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는 베드로가 전할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전하시는 말씀처럼 들켰다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유대인 이방인으로 구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기만 하면 누구든 다 받아주신다는 걸 깨달았다 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에서 시작해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신 것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와 부활로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식사까지 한 우리는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 주님이 곧 다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인데 누구든지 그 분을 믿기만 하면 죄를 다 용서받는다 하였습니다.

고넬료가 받은 상

죄 사함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으니 거기 있던 사람이 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믿었다는 말이지요. 모두가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전에 오순절에도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사도들이 다 방언으로 말했는데 말한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 곧 구원이었습니다. 고넬료 집안 사람들도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였으니 오순절에 일어났던 사건의 재현입니다.

오순절에도 베드로가 죄 사함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행 2:38). 그런데 성령이 먼저 오셨습니다. 죄 사함을 이미 받았다는 말이지요. 회개도 벌써 했습니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행 10:47)?

고넬료가 받은 상은 그럼 뭐니까? 세례입니까? 아니지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줄 믿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세례도 못 받았습니.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올바르게 섬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받는 성령의 선물도 받게 하셨습니다.

성취된 약속

그런데 고넬료 한 사람에게 상 주시는 것 치고는 좀 거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섬긴 사람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왜 유대인인 베드로를 부르라 하시고 베드로한테도 이방인이지만 거부하면 안 된다 하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같이 가게 하셨을까요? 고넬료가 살던 곳이 가이사라인데 거기 전도자 빌립도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행 8:4-13).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는 말씀을 전한 다음 세례까지 주었습니다 (행 8:26-40). 말씀 듣고 세례 받는 정도라면 빌립을 불러도 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를 부르라 하신 것은 고넬료가 받은 복이 고넬료 한 개인의 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복의 내용은 성령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한 곳에서는 성령이 오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 오순절 이후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 대신 베드로를 불러오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사용하신 이유는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온 교회에 알리시려는 뜻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넬료를 필두로 모든 이방인이 죄 사함과 구원의 복에 유대인과 조금도 다름없이 동참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베드로를 쓰셨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한 다음 이어 말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은 구약 선지자 요엘을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오순절에 이 말씀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뜻을 제대로 몰랐습니.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셨습니다. 잘 믿은 고넬료에게도 상을 주셔야지요. 하지만 고넬료를 시작으로 모든 이방인에게, 누구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

혜와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베드로와 고넬료를 쓰셨습니다.

이방인의 구원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얼마 뒤 예루살렘 교회에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 교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환상을 본 이야기부터 자세하게 전해준 다음 저뿐 아니라 같이 간 여섯 명도 다 목격한 사건이라 하면서 고넬료 집안이 성령을 받은 사건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행 11:15).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오순절 사건과 그것과 똑같은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행 11:16).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이 유대인 신자뿐 아니라 이방인 신자에게도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읽은 그 말씀을 전합니다. 번역을 조금 고치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대 능히 하나님을 막겠느냐?” 우리하고 똑같은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뜻을 막고 세례 주는 것을 금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요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설명을 하는데 누가 반박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게 맞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지만 수천 년 전통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역사는 과격한 걸 싫어합니다. 유대인 신자 가운데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할례를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우겼습니다. 유대인이 안 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갑론을박 토론이 벌어지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고넬료 집안이 성령 받은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우리하고 똑같이 성령을 주셨는데 왜 그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한참 뒤 사회를 보던 야고보가 결론을 냅니다.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 성경 예언하고 일치한다. 그러니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들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복, 하나님의 뜻

고넬료라는 한 개인이 받은 복이 맞긴 한데 거기 담긴 뜻을 보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전 선지자 요엘을 통해 성령을 부어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방인 가운데서는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최초로 성취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교회의 중심이던 베드로에게 맡기셔서 요엘서 예언뿐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약속한 다른 말씀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신약 시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침없이 뻗어나가게 만드셨습니다.

고넬료는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구원의 말씀을 선물로 주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받고 보니 성령까지 주셨습니다. 유대인들만 받던 세례도 받았습니. 하나님이 이 놀라운 걸 나한테 주시는구나,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거기까지만 알았지 그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는 끝까지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알았지요. 보자기 환상을 보았을 때부터 뭔가 심상찮다 싶었는데 정말로 평생을 멀리하던 이방인을 집에 들여 재우고 다음날은 이방인 집에 가 말씀도 전하고 세례까지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알았겠지요.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을 볼 때마다 이방인도 주 예수만 믿으면 우리하고 똑같이 구원 받는다 설명했고 그 일로 논란이 벌어지자 하나님 말씀을 갖고 분명하게 설명도 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늘 두 번째 본문 바로 다음에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전에는 유대인한테만 전도를 했습니다. 잘못이지요?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순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못 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는 이방인에게도 전도를 해 유대인, 이방인이 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교회니까 하나님이 해외선교를 맡기신 거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이방인도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거리낌 없이 세례를 주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내 삶 하나님의 섭리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을 간단히 살피며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뭘겠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신다, 그것도 배우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기도도 구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기도와 구제는 가장 큰 계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

리가 이거 말고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복 주신다는 걸 배우고 복이 무엇인지 그것도 배웁니다. 기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더라. 뭘요? 돈 말고 성령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는 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고넬료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뜻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에는 내가 모르는 차원의 복도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불러 부흥회 안 해도 우리가 고넬료처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면 나는 모르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 배웁니다. 고넬료가 받은 선물의 가장 중요한 뜻은 이방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핏줄로 따지면 이방인 아닙니까? 성령은 고넬료가 받았는데 혜택 본 사람은 바로 우립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인생입니다. 수수께끼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와 이렇게 숨 쉬며 살아가고 있을까, 너와 내가 어떻게 만나 부부가 되기도 하고, 가까운 친구가 되기도 하고, 한 교회 교인이 되기도 하는지 그저 신기하지요. 세상 살면서 겪는 어려운 일도 우리는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뜻이 뭔지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지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뭘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고 순종하는 삶의 결론은 반드시 복이요, 그 복은 나를 넘어 많은 사람에게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는 좀 있었겠지만 고넬료도 그다지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대에서 우리하고 비슷한 역을 맡은 배우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크게 쓰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십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르지요. 그걸 확실히 알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써 주신 것이 바로 오늘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권수경 목사)